서효인의 '소설처럼'

솔직하고 유려하기 -임지은 산문집 '헤아림의 조각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에세이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을 뜻한다. 여기서 일정한 형식은 아마도 시나 소설, 희곡이라는 장르의 문법을 이르는 말일 터다. 즉 에세이는 장르라는 외피를 던지고, 작가의 느낌이나 체험을 쓰는 글이다. 하나 느낌이나 체험을 쓰는 글이라는 말로 에세이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글은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이 재료가 되니까. 일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글도, 노트 구석의 낙서마저도 그렇다. 그것들 모두를 에세이라 부르게 주저함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에세이에는 위의 글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

그 특별함은 솔직함과 유려함의 균형에서 비롯될 것이다. 일기나 낙서는 구태여 타인에게 보여줄 일이 없으니 솔직하기 이를 데 없을 일이지만, 같은 이유로 단정하고 보기 좋게 쓸 필요도 없다. 각종 SNS에 올리는 글은 남들 눈을 의식해 쓰일 테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마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에서 에세이 쓰기는 존재한다. 요컨대 에세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되, 타인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글이라는 아이러니한 운명을 갖는 셈이다.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그것이 자신의 과거사일 때는 더욱 그렇다. 책 속에 화자는 윤리적이거나 소탈하거나 이지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 글쓴이의 삶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솔직하되 유려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에세이 작가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그중 최근에 활발히 저작 활동은 하는 여성 작가들은 더욱 그렇다. 페미니즘에 입각한 자기 체험을 쓰고, 소수자로서 발언을 이어나가고, 그것을 자기 삶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실로 거대한 용기를 수반하고, 그 용기는 타인이 미루어 짐작하기 힘든 깊은 동굴이나 지하 갱도에서 비롯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고백의 성격을 갖기에 그렇다. 어떻게 진정한 자기 고백을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유려한 자기 고백을 할 것인가? 그것이 글쓴이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을지도 모를 일인데.

임지은 산문집 '헤아림의 조각들'은 그 위험성을 모두 헤아리고, 그걸 알면서도 박차고 나온 책이다. 저자의 자기 고백은 무한히 솔직하되 그만큼 담백하고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폭력적이지 않다. 작가는 일견 쉽게 받아들여지는 논리들에 반하는 강짜를 부리지만 타인의 사정 앞에서는 그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한다. 달리 말해 끝없이 헤아린다. 예를 들어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동일하기보다는 동등한 사이라고 중얼거리는 식이다. 데이트 폭력의 상처 안에서도 오직 자신만이 간직할 수 있었던 감정을 마주할 줄 안다. 오로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할 것 같은 할머니와의 일화에서도 가감 없는 솔직함은 복잡한 방식으로 읽는 이의 슬픔을 건든다. 그것은 나도 저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못했었지만. 앞으로도 말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는 마음에 가까울 것이다.

느낌이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내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한 권의 책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중은 모두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느낌이나 체험을 글로 쓴다고 모두 책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느낌이나 체험이 남이 왜 읽어야 하는가? 임지은은 위에 말한 가감 없음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쓸 줄 안다. 그리하여 작가의 솔직함은 독자에게 읽을 만한 것이 된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지 못해 애가 타는 노인들과 그 곁에 떨어지는 목련이 한 페이지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타인의 경험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문장의 힘으로 그 장면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에세이는 읽는 이의 손을 잡는다. 잡아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쪽으로 오라고 한다. 우리는 속절없이, 그리로 갈 것이다. 가서 함께 헤아릴 것이다. 너와 나를, 우리를, 우리를 둘러싼 세계까지도. 〈시인〉

의료칼럼

아토피 피부염

백 상 철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아토피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항원 노출의 감소와 인체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아의 10~30%, 성인의 1~3%의 유병율을 보인다.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에서 시행한 전국적 역학 조사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1995년 16.6%, 2000년 24.9%, 2010년 35.6%로 해마다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는 그리스어 어원으로 '기묘한' 또는 '비정상적인 반응'이란 의미로써, 음식물 혹은 흡인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식품 알레르기와 영아기 습진에서 시작하여 천식,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등으로 이완되는 알레르기 행진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이며,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아토피 소인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보호막인 피부 장벽 이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가족력과 병력을 가진 환자에서 특징적인 병변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건조, 긁으면서 발생한 조직 손상으로 인한 찰상,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습진성 병변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임상 증상이다.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긁거나 문지르면 피부 질환이 심해지고 이러한 병변은 다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소양감은 주로 야간에 더욱 심해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2세 이하의 영유아기에는 뺨, 머리, 목 등에 홍반, 수포, 습윤성 가피 형태를 많이 보이고 소아, 성인형으로 진행할수록 손목, 팔꿈치 접히는 부분, 무릎 접히는 부분, 목 주변, 안검 등에 진물이 적고 건조하며, 만성적인 코끼리 피부 모양의 태선화 형태를 보인다.

아토피 환자의 70~80%는 가족력이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자녀의 50%에서, 부모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자녀의 75%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난다.

최근 들어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증가, 모유 수유의 감소,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알레르기 항원 물질의 증가, 지나친 보호로 인한 항원 노출의 감소, 소아기 감염 질환의 감소 등의 환경적 요인도 아토피성 피부염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대부분 혈액 속 면역글로불린(IgE)가 증가돼 있으며, 환자의 약 85%는 여러 가지 음식과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상의 결과가 현재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임을 나타내지 않고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정도와도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반응 검사 등이 필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의 장벽 기능이 저하돼 피부가 건조되고, 피부 건조는 가려움증과 피부 태선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장벽 기능의 저하로 여러 자극 물질의 침입과 피부 알레르기 발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돼 재발을 반복해 만성화되고 난치성이 되어간다. 이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태중에 있을 때 열(熱)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선천적으로 기운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생 이후에 부적절한 식이 습관과 생활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내선' '사만풍' '습창' 등의 영역으로 본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은 증상의 발현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보습과 세정을 통해 피부를 튼튼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2차 피부 감염을 막고 증상에 따라 광선 치료, 한약 내복, 외치약의 도포,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냉온욕과 풍욕, 모관 운동을 통해 말초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고, 목욕 후에는 물기가 있을 때 오일과 보습제를 바름으로써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손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2차 피부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가려움증의 증상이 있을 때는 긁지 말고 피부를 차갑게 해주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이 좋다.

기 고

'강사랑환경대학'에서 배우는 탄소 중립

박 남 규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강사

우리나라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근대화 산업 개발을 위해 전국에 수많은 산업단지를 건설했다. 그 결과 국가 경제는 크게 발전했으나 자연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심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 환경청을 발족하고, 1992년 환경부로 확대해 공해 방지, 환경보전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환경보전을 넘어 기후 변화, 기상 이변, 이상 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으로 정책을 전환,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등을 국제 사회에 공언했다.

지난 100여 년간 익숙하게 사용해온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감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의 전환, 대단위 삼림 보존 및 재(再)조림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을 실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응 조치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간 차원에서 환경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958년 5월 창립한 밀알중앙회는 오랫동안 농촌 부흥에 앞장서 온 단체다. 이후 국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난 2013년 물 사랑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강사랑환경대학'을 개설했다.

초·중·고·대학생들은 각급 학교에서, 공무원들은 국립환경교육원·공무원교육원에서, 환경사업 기업체 직원들은 환경부 법정 법인인 환경보전협회에서 환경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마땅한 환경 교육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랑 환경 대학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았고 대학과 광주시내 환경 사업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환경 관련 강연을 펼쳐 왔던 터라 강사랑환경대학에 강사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강사랑환경대학은 2013년 9월 제1기 첫 수강생 40명을 시작으로 제8기 과정을 마쳤으며 지금까지 200명에 가까운 수료생을 배출했다. 환경 보전,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료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명예 환경 감시원증을 발급받아 민간 환경 감시원으로 환경 보전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7월 4일까지 이어지는 올 강사랑 환경 대학에도 시민 40명이 참여해 열심히 활동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기후 온난화가 진행돼 빙하가 녹아내리고 온실가스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기후 변화, 기상 이변, 이상 폭우, 강력한 태풍 발생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상 위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법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미래 세대,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전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제 사회에 탄소 중립 정책을 약속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해도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강사랑환경대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후 변화, 기상 이변, 탄소 중립 과정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 국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제로' 사회로 점차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社 說

잇단 '반도체 낭보' 특화단지 유치로 결실 맺자

광주·전남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공모 사업'에서 전남대·전북대 연합 대학이 최종 선정돼 34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구축과 기업 협업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5개교)과 두세 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3개 연합)으로 구분된다. 전남대와 전북대는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광융합·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이동 수단용 반도체' 전문 인력을 4년간 420명 양성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교육부의 '국립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서는 Ⅰ권역(전남·전북·광주)에 전남대·목포대·순천대 연합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5년간 4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반도체 교육과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지난 4월에는 광주·전남 차세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성과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에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국가 전략 회의에서 광주시의 주력 산업인 AI와 반도체 산업의 접목을 통한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넓은 부지 등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수한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광주·전남에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 대재앙 현실화…오염수 방류 막아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오염수 방류에 나설 방침이다.

IAEA 조사단은 이미 이달 초 일본 현장 조사를 마쳤고 IAEA 사무총장은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빠르면 다음 달 오염수 방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오염수를 방류하는 설비를 시운전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남 지역 어민들의 수산업 대재앙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도 벌써부터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천일염처럼 장기 보관에 문제가 없는 수산물을 사재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완도 전복을 비롯해 대다수 수산물이 도매는 물론 소매가 거의 끊긴 상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이미 수산물 매출이 30%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매출의 3분의 2까지 줄어 든 곳이 많다.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장기 대책 차원에서 회유성 어종 대신 연안에 상주하는 낙지 등으로 어종을 전환하려는 어민들도 한둘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세슘과 삼중수소의 유해성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현재로선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하다'며 정부를 믿으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無 等 鼓

조지 윈스턴

추억을 소환하는 장치 중 음악만 한 게 있을까. 어떤 멜로디가 흐를 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함께 했던 사람과 풍경, 그 시절의 내가 오롯이 떠오르곤 한다.

아마도 지난주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레 '이 사람'의 음악을 찾아 들으며 '어느 한 때'로 되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다. 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LP를 꺼낸 이도, 늘어지도록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린 이들도 있을 것이다. 피아노 악보를 구입해 연주하곤 했던 누군가는 오랜만에 다시 피아노의 뚜껑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1949~2023)의 음악은 특히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표 앨범인 '디셈버'(December)는 세계 판매량 300만 장 중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니 이 음반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이들도 그만큼 많은 셈이다. 무엇보다 선물로 많이 주고받았던 음반이라 오랜만에 그리운 이를 떠올려 보게 된다. 조지 윈스턴은 한국인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아리랑'을 편곡해 보너스 트랙으로 싣기도 했다.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앨범 수록곡 'Thanks Giving'과 'Joy' 등 그의 음악을 듣고 힘들었던 젊은 날을 건너왔다는 글들이 SNS 등에 많이 올라왔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크 시대 작곡가 파헬벨의 '캐논'은 이 앨범 덕에 전 국민이 아는 클래식으로 자리잡았고, 이 음악을 듣고 클래식에 입문했다는 이도 많다.

연배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감성을 폴 모리아 악단이나 제임스 라스트 악단을 통해 느꼈을 듯하다. 경양식집이나 라디오 시그널 음악으로 흘러나오던 '이사도라' 'Love is blue' 등의 경음악은 '제목은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친숙한 음악이다.

유튜브를 통해 오랜만에 '디셈버' 앨범을 챙겨 들으며 가장 좋아했던 'Night/Part Three: Minstrels'의 따뜻한 선율에 위로를 받았다. 자연스레 그 시절로 돌아가, 오래된 이름과 얼굴들을 떠올려도 봤다. 차이코프스키의 말처럼 "음악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에 틀림없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